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 연구

- 논산시 외국인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이성순
(목원대학교)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이론적 배경
3.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4. 연구결과
 -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 4.2. 한국어 교육기회 부재
 - 4.3. 체류 및 고충상담의 부재
 - 4.4. 고용주/근로자 대상 노무교육 및 컨설팅 부재
 - 4.5.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부재
5. 외국인력 정책 제언
 - 5.1. 전달체계 구축
 - 5.2. 기관 연계를 통한 권역별 한국어 교실 운영
 - 5.3. 외국인력지원센터 논산지부 혹은 외국인복지센터 개소
 - 5.4. 고용주/근로자 대상 맞춤형 노무교육 및 컨설팅 실시
 - 5.5. 커뮤니티 및 외국인주민 대표자회 구성
 - 5.6. 문화적 수용성 증진 교육 플랫폼 마련
6. 나가는 말

<Abstract>

Lee, sung-soon. 2021. 7. 1. **A Study on Foreign Workforce Policy - Focusing on the Survey of Foreigners in Nonsan City.**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8, 59-8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rections and policies in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for foreign workers in Nonsan, based on the survey on foreigners in Nonsa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lack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absence of grievances and residency counseling, the absence of education and consulting for foreign worker employers and foreign workers, the absence of measures to promote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y, and measures to enhance the cultural acceptance of Koreans were found in the support of foreign workers living in Nonsan, appeared to be absent. As a policy suggestion, first, it is premi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delivery system according to the policy goals and key tasks of the foreigner policy of Nonsan City. Accordingly, the division of the foreign policy division, which plans and oversees foreign policy as the Donggo Dongrak domestic administrative department of Nonsan City Hall, and the Foreigner Support Division, which manages organic cooperation with multicultural institution is required. Second, it is required to conduct Korean language classes linked to multicultural organizations and to operate Korean language classes for foreign workers by regions where foreign workers are concentrated and by each area. Third, it is required to open the Cheonan Foreign Workers Support Center Nonsan Branch or to establish the Nonsan Foreign Welfare Center for foreigner grievance counseling and residency counseling. Fourth, in the absence of labor counseling, human rights counseling, and return support for foreign workers' employers and foreign workers, unified education and on-site consulting were conducted. Fifth, a community was established to promote foreign workers' participation in the local community,

A plan is required to involve foreign workers in the Foreign Representatives' Association so that they can advise and monitor the information. Finally, in order to enhance cultural receptivity, a platform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connection with multicultural institutions and lifelong learning centers in Nonsan City.(Mokwon University)

[Key words] migrant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labor counseling and on-site consulting

1. 들어가는 말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1차 기본계획은 4대 정책목표와 169개 세부 추진과제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조 3,364억 원(중앙 6,406억 원, 지방 6,96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시행되었고 2차 기본계획은 5대 정책목표와 146개 세부 추진과제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조 3,107억 원(중앙 2조 1,779억 원, 지방 1조 1,337억 원)의 예산이 투입·시행되었다. 5대 정책목표별 성과로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국내 경기의 활성화, 국제결혼 관련 법과 제도 정비, 결혼이민자 대상 맞춤형 지원,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 불법체류 발생 억제, 난민심사 체계 구축 등이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비전문직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의 문제, 국민의 일자리 침해 문제, 결혼이민자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재한외국인 지원 부족 및 지원 형평성의 문제,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 부족, 마지막으로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및 중앙·지자체·민간의 협력 부족 등이다.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는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 분절적으로 작동하는 점이 특징이다. 실효적인 외국인정책의 추

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구축과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전술한 체계하에 외국인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가 차시년도의 정책수립에 반영되는 환류체계 도입이 요청된다.

기초지자체별 연도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지만 논산시의 경우 2019년 기준 논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한마당대회,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지원 등 3개 과제를 수행하였을 뿐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지원부족의 문제 등 논산시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실효적인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필자가 참여한 2020년 논산시 외국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여 논산시 외국인력 정책의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내외국인 상생방안 등 중장기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의미한다. 1980년대 국민 1인당 총소득(GNI)¹⁾이 증가하면서 내국인의 3D 업종 취업이 급감하였고 1987년 이후 3D 업종에 외국인력이 고용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3D 업종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중소기업체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의 합법화를 요구하였

1) 국민 1인당 총 소득(GNI)은 1961년 84.7달러, 1971년 292달러, 1981년 1,857달러, 1991년 7,626달러, 2001년 11,484달러, 2011년 25,255달러, 2020년 31,880달러로서 1981년은 1971년 대비 국민 1인당 총소득이 6.4배 증가함 (<http://ecos.bok.or.kr/jsp/vis/keystat/#/detail>, 검색일자 2021.6.18.).

으나 정부는 단순외국인력의 국내 취업 금지원칙을 고수하였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1991년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를 도입하고 1993년에는 외국인 산업 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인력 수요에 비하여 연수생의 공급이 부족하자 사업주들은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하였고 연수생은 불법취업한 자가 자신보다 높은 임금의 수령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사업장을 이탈하였다. 산업연수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시도하였지만 경영계의 반대로 지연되어 오다가 2000년 연수취업체, 2002년 외국국적동포 대상의 취업관리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고용허가제가 산업 연수생제와 병행 시행되었고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가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다.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국인력의 도입·운영계획 등을 정부가 수립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2,524,656명이고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총 567,261명으로 총 체류하는 외국인 대비 22.6%이며 체류자격별로 보면 전문인력(E-1~E-7) 46,581명(8.2%), 단순기능인력(E-8~E-10, H-2) 520,680명(91.8%)이다. 2019년 말 기준 논산시의 등록 외국인은 4,139명이고 이 가운데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2,158명으로 논산시의 총 체류하는 외국인 대비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52.1%임을 알 수 있다(법무부, 2020: 19). 체류자격별로 보면 전문인력 33명(1.5%), 비전문인력 2,125명(98.5%)으로 전국 기준 비전문인력 의 비율 91.8%보다 6.7%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제도에 관한 연구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설동훈(2010)과 설동

훈·이규용·노용진(2011)은 고용허가제 운영에 있어 중장기적인 경제·고용을 전망하고 저출산·고령화, 인력이동 증가를 고려한 중장기적 외국인력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활용 가능성 평가, 세분된 사회통합정책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김남진(2016)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따른 제한은 근로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의 증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바 유연한 규제 방법으로서 장기체류자와 단기체류자의 특성을 제고한 노동허가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임안나(2009)는 외국인근로자 대상 귀국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귀국 후 가족결합, 재취업, 창업 등 정착과정에 대한 지원과 현지 진출 기업으로의 취업연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한국 입국 후 고용허가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이 전제된다고 피력하였다. 이민솔(2019)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대상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이해 교육 및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피력하였고, 손윤석(2013)은 외국인근로자를 단순기능인력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인식하여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권익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유민이(2019)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인 추이에 따른 인권보호를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별금지 대상에 외국인근로자를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엄진영·우병준·김윤진(2017)과 김정호(2018)는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고용허가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송재일(2016)은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농어업분야 쿼터 확대 방안, 근로자 선발, 농업기능평가시험을 통한 전문가 양성, 농어업 인력지원 분야의 감리체계 도입 등 법률개선 사항을 지적하였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을 주체적으로 수립·시행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하달식 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역할을 하였다. 지역 내 체류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하고 체류 유형이 다

양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인정책의 수립·정책개발, 정책평가와 환류 등 모든 단계의 수행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확대를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전향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외국인근로자 정책 연구 대부분이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거시적 정책연구로 지자체에 구안적용하는데 있어 제한적이었고 일부 지자체별 외국인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논산시 기반형 정책연구는 부재한 바 본 연구에서는 논산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연령, 직업, 소득, 거주 등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논산시의 외국인력 지원체계 구축 등 외국인근로자 정책 수립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0년 7월-8월이고 공간적 범위는 논산 행정구역 2읍 11면 2행정동(11법정동) 전역이다. 연구방법은 대면조사로 실시되었고 대면조사의 내용은 외국인근로자의 개인특성, 기초현황, 근로실태, 생활실태, 논산시 사회적응지원정책, 논산시 삶의 향상정책 등이다. 대면조사 방법은 전통적인 설문조사이고 금강대학교 외국인 학생과 논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원이 조사요원으로 참여하였다. 조사 대상의 국적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설문조사표는 한국어 외에 5개국 언어(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우즈베키스탄, 태국)로 번역되었다. 조사항목은 2019년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항목을 근간으로 하여 일반 공통 조사항목²⁾과 외국인근로자 조사 항목³⁾으로 설계되었다.

4. 연구 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외국인근로자는 ‘남성’ (93.9%), ‘30대’ (56.1%), ‘4년제 대학 졸업’ (36.7%), ‘배우자 있음’ (59.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출신국가는 ‘베트남’ (24.4%), ‘중국’ (13.9%)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초 외국인등록시 체류자격은 ‘전문인력’ (97.8%), ‘방문취업’ (1.7%)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 (47.8%), ‘전문인력’ (1.1%), ‘방문취업’ (0.8%), ‘투자 및 무역경영’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체류기간은 ‘1-3년 미만’ (46.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논산시 체류기간은 ‘1-3년 미만’ (50.6%)이 높게 나타났으며 논산시의 거주지역은 ‘면단위 지역’ 거주비율이 65.0%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이 남성 56.9%인 점에 비하여 논산지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남성이 93.9%로 전국 통계에 비해 남성비율이 37.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의 경우 전국 통계는 중국(48.6%), 기타 아시아(30.2%), 베트남 (12.5%), 아시아 이외 지역(8.7%)인데 비하여 논산지역의 경우 기타 아시아(62.2%), 베트남(23.3%), 중국 (10.6%), 아시아 이외 국가(3.9%)인 점에서 논산지역에 거주하는

2)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결혼상태, 가족구성원 수, 출신국가, 생활지역, 한국/논산생활 기간, 생활지역 이동횟수, 현재/최초 체류자격, 거주유형, 거주지 소유형태, 건강상태, 한국어능력, 여가 및 취미활동, 교육/지원서비스 수혜여부, 필요한 교육/지원서비스, 생활만족도, 생활중 어려움.

3) 취업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 취업 분야, 고용형태, 사업장 근로자 수, 외국인 근로자 수,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지출 비용, 향후 한국 체류 기간, 이전 직장에서 이직하게 된 이유, 일하면서 경험한 일, 적응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정부/논산시에 원하는 정책(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는 전국 통계 비하여 중국 출신 근로자 25.3%, 베트남 출신 근로자 10.8%가 낮은 반면에 기타 아시아 출신 근로자가 전국 통계에 비하여 32.2% 높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전국 통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한국 체류기간이 5-10년 미만(25.3%), 1-3년 미만(24.3%), 10년 이상(20.9%), 3-5년 미만(20.1%)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논산시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한국 체류기간은 1-3년 미만(46.7%), 3-5년 미만(32.2%), 5-10년 미만(15.0%), 6개월-1년 미만(3.4%), 10년 이상(2.8%)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통계 1-3년 미만의 체류 비율이 24.3%인 점에 비하여 논산시의 경우 1-3년 미만 체류기간을 가진 외국인이 46.7%로 전국 통계에 비하여 22.4% 높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논산시 거주지역으로서는 면단위(65.0%), 읍단위(33.9%), 동단위(1.1%) 순으로 면단위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

성별	남성		여성		
	93.9		6.1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32.8	56.1	8.9	2.2	
학력	중졸 이하	고졸	2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3.3	36.1	23.9	36.7	
혼인여부	미혼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40.0	59.4	0.6		
출신국가	중국	베트남	기타 아시아	아시아 이외국가	
	10.6	23.3	62.2	3.9	
한국 체류기간	6개월-1 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3.4	46.7	32.2	15.0	2.8
논산시 체류기간	6개월-1 년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3.4	50.6	31.7	11.7	2.8
논산시 거주지역	읍단위		면단위		동단위
	33.9		65.0		1.1

전국 통계는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30.2%), 방문취업(18.3%), 전문인력(4.4%)인 반면에 논산지역의 경우 비전문취업(47.8%), 전문인력(1.1%), 방문취업(0.8%) 순으로 전국 통계에 비하여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근로자가 17.6% 높게 나타났고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는 17.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체류 자격별 취업자>

(단위: %)

구분	비전문 취업	방문 취업	전문 인력	유학 생	재외 동포	영주	결혼 이민	기타
전국통계	30.2	18.3	4.4	2.7	22.5	8.9	6.5	6.4
논산시통계	47.8	0.8	1.1	13.9	2.8	2.8	16.7	14.1

4.2. 한국어 교육기회 부재

방문취업제를 제외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응시하지만 본 시험은 읽기와 듣기중심의 시험형태⁴⁾로 말하기 평가가 부재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외국인근로자 자신이 느끼는 한국어 능력 수준은 ‘못한다’가 64.4%로 나타났고, 받고 싶은 지원서비스에 있어서도 ‘한국어 교육’ (52.2%)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 ‘한국사회이해 교육’ (11.1%), ‘생활정보 지원서비스’ (10.0%), ‘취업정보/일자리제공’ (6.7), ‘출입국/체류관련 교육/상담’ (6.7%)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통계에서도 ‘한국어교육’ (41.5%)이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소개’ (31.3%), ‘한국사회이해 교육’ (18.2%), ‘출입국체류관련 교육 및 상담’ (16.2), ‘생활정보 지원서비스’ (10.4%)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34). 이 점에서 논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전국 통계보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10.7% 높음을 알 수 있고 취업정보 및 일자리 제공과 출입국 체류관련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서비스 욕구는 전국 통계에 비해 각각 24.6%, 9.5%

4) 한국어능력시험은 읽기(어휘, 어법, 실용자료 정보, 독해, 20문항)와 듣기(소리듣기, 시각자료, 대화나 이야기,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배점은 영역별 100점임.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 한국어 능력>

(단위 : %)

구분	전혀 못함 ①	별로 못함 ②	보통 ③	약간 잘함 ④	매우 잘함 ⑤	못한다 (①+②)	잘한다 (④+⑤)
비율	2.8	61.7	20.0	12.2	3.3	64.4	15.6

<표 4 받고 싶은 지원서비스 및 농산생활에서 어려운 점>

(단위: %)

받고 싶은 교육 및 지원서비스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이해교육	생활정보 지원서비스	취업정보/ 일자리제공	출입국/체류관 련 교육/상담
전국통계	41.5	18.2	10.4	31.8	16.2
논산시통계	52.2	11.1	10.0	6.7	6.7
농산생활시 어려 운 점	언어문제	외로움	생활방식관습 등문화차이	음식	기후차이
	35.6	23.9	17.2	7.8	8.9

지난 1년간 논산에서 근로중 경험했던 일로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빠른 작업속도로 인한 어려움’(12.8%), ‘한국인 노동자와의 갈등’(5.6%)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언어소통 어려움’은 ‘여성’(72.7%)이 ‘남성’(63.9%)보다 높게 나타났고 ‘빠른 작업속도로 인한 어려움’에 있어서도 ‘여성’(27.3%)이 ‘남성’(11.8%)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5 지난 1년간 논산에서 일하면서 경험했던 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언어소통 어려움	빠른작업속도로 인한 어려움	한국인 노동자와의 갈등	작업으로 인한 질병	건강상의 문제
성별	남성	(169)	63.9	11.8	5.9	4.7	3.6
	여성	(11)	72.7	27.3	0.0	0.0	0.0

4.3. 체류 및 고충상담의 부재

외국인근로자로서 논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체류/생활고충 상담’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총 체류기간의 연장’ (10.6%), ‘다양한 교육의 기회’ (8.9%)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논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체류/생활 고충 상담	총 체류기간 의 연장	다양한 교육의 기회	이주민교류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	부당한차별 /폭력 등 보호활동
전 체		(180)	46.1	10.6	8.9	8.3	6.7
성별	남성	(169)	46.2	11.2	8.9	8.3	5.9
	여성	(11)	45.5	0.0	9.1	9.1	18.2

외국인근로자의 정착에 필요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으로 ‘한국어교육 정책’이 53.3%이고 다음으로 ‘체류/국적 상담 지원 정책’ (15.6%), ‘근로상담/ 지원정책’ (1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정착에 필요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한국어교육 정책	체류/국적 상담지원정책	근로상담/ 지원정책	인권지원 정책	의료지원 정책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전체	(180)	53.3	15.6	12.2	8.3	7.2	
성별	남성	(169)	53.3	14.8	13.0	7.7	7.7
	여성	(11)	54.5	27.3	0.0	18.2	0.0

논산시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대상 체류/국적 상담지원정책, 근로상담/지원정책의 방향성이 부재하고 일부 종교기관이 외국인근로자 대상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 대상 체류/국적 상담과 근로상담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부재한 실정이다.

4.4. 고용주·근로자 대상 노무교육 및 컨설팅 부재

2019년 전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체별 종사업종은 제조업(46.3%), 도소매·음식·숙박(19.1%), 사업·개인·공공서비스(16.0%), 건설업(11.0%), 농림어업(6.0%), 전기·운수·통신·금융(1.6%)이고 고용형태는 정규직근로자(57.5%), 계약직근로자(38.1%),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4.4%)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18). 반면에 논산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분야는 ‘제조업’이 8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농림어업’ 및 ‘건설업’이 각각 6.1%로 나타났으며 고용형태는 ‘정규직근로자’(55.0%), ‘계약직근로자’(44.4%), ‘자영업자’(0.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에는 ‘남성’(91.1%)이 ‘여성’(36.4%)에 비해 54.7% 높게 나타났고 ‘정규직근로자’ 부문에서도 ‘남성’(56.2%)이 ‘여성’(36.4%)보다 19.8%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종사업종에 있어서 전국 통계의 경우 제조업이 46.3%인 반면에 논산지역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이 87.8%로 전국 통계에 비해 41.5%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8 현재 취업 분야 및 고용 형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취업 분야			고용 형태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자영업자	
전체	(180)	6.1	87.8	6.1	55.0	44.4	0.6	
성별	남성	(169)	3.6	91.1	5.3	56.2	43.2	0.6
	여성	(11)	45.5	36.4	18.2	36.4	63.6	0.0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의 총 근로자 수는 남성의 경우 ‘10~29명’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9명 이하’가 45.5%로 높게 나타났다.

<표 9 사업장 근로자 수 현황>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총 근로자수				외국인근로자 수				
		9명 이하	10~29명	30~99명	100명 이상	4명 이하	5~9명	10~29명	30명 이상	
전체	(180)	20.0	38.9	27.8	13.3	27.8	27.8	33.9	10.6	
성별	남성	(169)	18.3	39.6	28.4	13.6	28.4	26.6	34.9	10.1
	여성	(11)	45.5	27.3	18.2	9.1	18.2	45.5	18.2	18.2

논산시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고용된 점이 특징이고 사업장의 규모에 있어서는 총 근로자 ‘29명 미만’ 사업장이 58.9%,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수는 ‘9명 미만’

인 경우가 55.6%에 달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이후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노무교육을 받은 바가 없고 고용주 또한 지자체로부터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안내, 노무교육 및 현장컨설팅 지원을 받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부재

외국인근로자의 향후 한국에서의 체류 예상 기간으로는 ‘1-3년 미만’ (65.6%)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3-5년 미만’ (26.1%), ‘5-10년 미만’ (3.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한국에서 향후 ‘1-3년 미만’ (100.0%)의 체류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향후 한국에서의 체류 예상 기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180)	1.1	2.2	65.6	26.1	3.3	1.7	
성별	남성	(169)	1.2	2.4	63.3	27.8	3.6	1.8
	여성	(11)	0.0	0.0	100.0	0.0	0.0	0.0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85.1%가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류기간 연장 방법으로는 체류기간 연장(51.0%), 영주자격 취득(17.2%), 한국국적 취득(11.3%)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47).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관점은 국적관점의 지원에서 거주관점의 지원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그에 상응하여 외국인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단체 참여정도를 조사한 결과 <표 11>과 같이 사회단체의 미가입(99%)이 높게 나타났고 참여활동 가운데는 본국인 중심 동호회 참여율이 12.6%로 나타났다.

<표 11 사회단체 참여정도>

(단위 : %)

구분	정당	노동 조합 단체	시민 운동 단체	본국인 중심종 교단체	한국인 중심종 교단체	본국인 중심동 호회	한국인 중심동 호회
미가입	99.0	98.3	97.3	96.9	92.5	83.0	89.4
가입·미활동	0.6	0.9	0.9	1.3	2.6	4.4	3.3
가입·활동	0.5	0.7	1.9	1.8	4.9	12.6	7.3

논산시 외국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단체 참여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 및 취미활동으로 ‘동료와의 교류활동’ (39.4%), ‘여가·취미활동 안함’ (25.0%), ‘요리활동’ (22.2%), ‘문화교류’ (3.9%), ‘한국여행/문화체험’ (3.3%) 순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전국 통계와 마찬가지로 본국인 중심의 교류에 참여할 뿐 지역사회의 참여는 거의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여가 취미활동>

(단위 : %)

구분	요리 활동	동료와의 교류활동	여가·취미 활동안함	문화 교류	한국여행/ 문화체험
비율	22.2	39.4	25.0	3.9	3.3

5. 외국인력 정책 제언

5.1. 전달체계 구축

논산시 외국인정책의 정책목표와 중점과제에 상응한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동시에 논산시청 동고동락국⁵⁾내 외국인정책과와 외국인지원과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말 기준 논산시 인구는 122,981명⁶⁾이고 그 가운데 등록 외국인 4,139명으로 논산시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논산시 인구 대비 3.7%에 달한다. 등록 외국인 가운데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가 47.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귀화한 자와 결혼이민자가 19.5%, 기타 32.7%⁷⁾인 점을 볼 때 비결혼이민자의 수가 결혼이민자의 4여 배에 달하지만 결혼이민자 외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논산시청 동고동락국내 행정부서로 외국인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외국인정책과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지원을 전담하는 외국인지원과의 신설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정책 수립 및 지원에 있어서는 <표 13>과 같이 논산시 관내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이 전제된다.

5) 논산시청은 6실(시장실, 부시장실, 전략사업실, 참여예산실, 청년감사실, 열린홍보실), 4국(친절행정국, 동고동락국, 행복도시국, 의회사무국)의 조직체제임. 동고동락국은 14개과(마을자치분과, 100세 행복과, 복지인권과, 주민생활지원과, 아동복지돌봄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환경과, 탄소중립과)로 구성됨.

6) <https://www.nonsan.go.kr/kor/html/sub04/040104.html>, 검색일자 2021.6.25.

7) 유학(13.9%), 단기방문(9.2%), 동포(2.8%), 체류기간 도과(2.8%), 관광통과(1.9%), 방문취업(0.3%), 투자, 무역경영(0.3%) 순임(월드리서치, 2020:59).

<표 13 전달체계 구축과 기능>

부서	전달체계	기능
외국인 정책과 · 외국인 지원과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기능 강화(방문형, 원격형) · 찾아가는 내국인 다문화인식교육 확대 · 내외국인 다문화축제 개최
	외국인력지원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 외국인력지원센터 논산지부 개소 · 생활고충, 체류, 노무상담, 쉼터 지원
	외국인유학생 한국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센터 개소 - 논산시남부평생학습관, 논산문화원 연계
	외국인자녀 보육시설 및 중점학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자녀 보육시설(어린이집, 지역아동센 터 등) 지정 운영⁸⁾ · 외국인자녀 유치원, 다문화중점학교 지정 확대 · 대학생 다문화학생 멘토링 연계
	글로벌시민 교육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수용성 증진을 위한 센터 운영 - 논산시사이버문화센터, 논산시사이버평생학 습센터 연계 · 외국인 커뮤니티 및 외국인주민 대표자회

5.2. 기관 연계를 통한 권역별 한국어 교실 운영

논산시 관내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기관은 논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인 건양대학교 이주민통합연구소이다. 다만, 전자는 결혼이민자 가족 중심의 지원기관으로서 집합교육 형태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

8)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는 3,422명이고 이 가운데 국내 출생의 자녀는 3,281명(95.9%),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141명(4.1%)이지만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증가에 따라 2012년부터 ‘외국인근로자 자녀 통합어린이집’을 지정하고 2020년 8월 현재 총 6개 어린이집(2012년 장안어린이집, 해누리(킨더포레어린이집), 2015년 코윈어린이집, 2020년 초롱어린이집, 숲속나무어린이집, 남양어린이집) 지정 운영됨.

고 방문한국어 교육 대상은 국민의 배우자와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 논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으로서 외국인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된다. 후자는 임·출산한 자, 격오지 거주자 대상의 화상교육을 제외하고는 집합교육 중심으로 실시하고 코로나 19 발생 이후 원격교육을 실시하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경우 사전평가를 응시한 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할 뿐 청강제도가 부재한 바 외국인근로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응시에 대한 안내도 전제된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한국어 자원봉사자와의 연계를 통하여 논산시 관내 외국인이 밀집 거주하는 권역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 개설·운영하는 방법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교육복지증진과 언어적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면단위(65%), 읍단위(39.9%), 동단위(1.1%) 순으로 거주함을 제고하여 농공단지과 산업단지 소재지의 권역별(노성면, 성동면, 강경읍, 연무읍)⁹⁾ 읍·면사무소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한국어 교실 운영이 요청된다.

5.3. 외국인력지원센터 논산지부 혹은 외국인복지센터 개소

논산지역의 외국인 지원기관으로서 논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고 본 센터의 주요 사업유형은 프로그램과 상담(사이버 상담 포함)이며 사업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다. 이에 논산시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가정 대상의 지원은 부재한 실정이다.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

9) 논산시 농공단지는 노성농공단지, 은진농공단지, 강경농공단지, 연무농공단지, 동산농공단지, 양지농공단지, 양지제2농공단지, 가야곡농공단지, 가야2곡농공단지 등이고 일반산업단지는 논산일반산업단지와 논산1일반산업단지, 동산일반산업단지 등임(<https://www.nonsan.go.kr/kor/html/sub05/05030101.html> 검색일자 2021.6.26.).

주 대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경기도 외국인력상담센터 1개소, 외국인력지원센터 9개소¹⁰⁾가 운영 중이고 외국인근로자 대상 주요 사업은 교육과 상담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고용노동부 지정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외에 2017년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를 개소하였지만 평일에 운영되어 평일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이용하는 데 있어 제한적이다. 뿐만 아니라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의 경우 평일(토요일 휴무), 일요일 상담이 가능하나 접근성의 문제로 인하여 논산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력이 이용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는 바 논산시 관내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논산지부의 설치 혹은 논산시의 자체 예산으로 외국인복지센터의 설립 운영이 요구된다. 논산시 관내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 4,139명 가운데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2,158명으로 논산시에 체류하는 총 외국인의 52.1%가 외국인력이고 논산시에 체류하는 외국인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하에 관내 외국인복지센터의 설립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청된다. 특히, 외국인복지센터의 경우 논산경찰서의 외국인도움센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논산시자원봉사센터, 복지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가 요청된다.

5.4. 고용주·근로자 대상 맞춤형 노무교육 및 컨설팅 실시

고용노동부는 2018년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근로조건 자율 개선지원 사업을 도입하였다. 본 사업은 외국인력을 고용한 사업주(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력의 근로계약부터 귀국지원에 이르기까지 노무행정에 미흡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적응과 직무역량 강화, 안정적인

10) 서울, 경기, 대구, 인천, 광주, 의정부, 천안, 김해, 창원지역 등 총 9개 지역에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있고 경기지역의 경우 외국인력상담센터가 있음.

인 귀국지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박원주·전용일, 2012: 169; 김연홍·임세영, 2014: 63; 엄진영·우병준·김윤진, 2017: 1; 김연홍·이성순, 2019: 173).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노무관리, 행정처리 등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업주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현장 컨설팅을 수행하는 맞춤형 지원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8: 3).

논산시의 경우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고용허가제 현장 컨설팅 사업과의 연계가 요구되는데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근로계약 체결, 노무, 행정처리, 전용보험, 성희롱·성폭력 예방, 스트레스·우울증 해소, 산업재해 예방 등 전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한 지원일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른 숙소 등 근로환경 계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5. 커뮤니티 및 외국인주민 대표자회 구성

외국인근로자에게 있어 사회참여(자조모임, 커뮤니티 등)는 한국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타의 어려움과 차별을 극복하고 자신의 역량개발은 물론 자아존중감, 자아인식의 변화, 소속감 강화로 지역사회 적응을 강화할 수 있는 작동기제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입국 초기 적응기를 거친 외국인근로자들이 사회참여를 통하여 한국인과 교류하고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 기회를 가짐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이후 매년 논산시 다문화가족 한마당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 가족 중심의 축제로서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 증진방안은 부재한 실정이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9: 670).

논산시의 경우 2009년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의 증진,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외국인주민 정책에 대한 자문과 모니터링 등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있어 외국인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 대표자회 구성이 요구된다.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집단소속감 조사결과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한국에 대한 소속감(50%),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39%), 본국에 대한 소속감(36.4%) 등 한국에 대한 소속의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회참여 의사에 대한 반증인 바 내외국인의 사회 참여방안 마련이 요구된다(통계청, 2019: 59).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이란 이민자 개인이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하고 동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민자가 삶을 영위하는 지역에서의 문화간 접촉,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 등으로 성취되는 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욕구에 기반한 참여 증진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5.6. 문화적 수용성 증진 교육 플랫폼 마련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이란 문화 차이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특정한 지역 또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인간사회와 문화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는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교육부, 여성부, 법무부 등 부처별 주요 사업과 정책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중장기 계획¹¹⁾에 문화 다양성이 주요하게 언급되기 시작하였고 지역별로는 문화다양성 조례가 제정되고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지만

1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에는 문화다양성 존중정책이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로 명시되었고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에는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로 적시되었으며 제3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2018-2022)에서도 다양성이 언급됨.

문화적 소수성을 인정하는 정책,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는 정책 등 문화 다양성이라는 본질적 가치 구현의 정책 수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논산시의 경우 문화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논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어울림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과 2019년도에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지를 찾아가는 다문화인식개선 사업이 추진되었고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부터 다문화학교로 지정받은 초등학교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이 실시¹²⁾되었으나 중등교육 기관과 시민대상의 세계시민교육이 부재한 바 논산시민 대상 다문화인식개선 관련 교육 플랫폼 마련이 요구된다. 일례로, 논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 전문강사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법과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사업¹³⁾으로서 논산시사이버문화센터, 논산시사이버평생학습센터와 연계 운영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6. 나가는 말

논산시의 인구는 2016년(127,022명) 이후 매년 감소추이에 있고 노령화지수에 있어서는 2020년 기준 충청남도의 평균 노령화지수 133.5에 비하여 232.8¹⁴⁾로 높게 나타난 바 인구정책(출생, 사망,

10) 논산시 관내 학교별 내동초(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동성초(다문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반월초(세계시민교육), 부창초(글로벌 인재육성 국제이해교육), 중앙초(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융합교육) 세계시민교육이 실시됨(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cnnse.go.kr>).

13) 논산시는 평생교육 조례 제정, 평생학습 전담부서 설치,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조성, 논산학, 6차산업 육성, 지역사회주말행복배움터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이고 2015년 5월 교육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충청신문, 2015.6.1.일자).

14) 논산시 인구는 2016년 127,022명, 2017년 126,192명, 2018년 124,938명,

이동) 차원에서 외국인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외국인력 정책의 경우 지역산업체의 기능인력 확보를 통한 지역산업 성장 효과와 지역농업 노동력 확보를 통한 농산물 생산력 증대 효과, 다국적 기업화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의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논산시의 외국인력 정책 방향 및 내외국인 사회통합의 방안의 관점에서 정책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산시 외국인정책의 목표와 중점과제에 따라 전달체계와 구축이 요구되는데 논산시 청 동고동락 국내 행정부서로 외국인정책을 기획·총괄하는 외국인정책과와 논산시 관내 다문화유관기관간의 유기적 연계 하에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외국인지원과의 분장이 요구된다. 둘째, 외국인근로자가 논산시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53.3%로 높게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 유관기관인 논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일반) 운영기관, 한국어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외국인력이 밀집거주하는 지역의 권역별 또는 농공단지과 산업단지 소재지의 권역별(노성면, 성동면, 강경읍, 연무읍)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 운영이 요구된다. 셋째, 논산시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한국어교육 다음으로 ‘체류/국적상담 지원정책’ (15.6%), ‘근로상담/지원정책’ (12.2%) 순으로 나타난 바 있지만 논산시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대상 지원기관이 부재한 바 천안 외국인력지원센터의 논산지부 개소 혹은 논산시외국인복지센터의 설립을 통하여 체류국적상담 및 노무상담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 및 외국인근로자 대상 노무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이 부재한 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주 대상 노무교육, 인권교육, 취업적응교육, 귀국지원 교육 등 일원화된 교육 체계 마련이 요청된다. 다섯째, 실효적인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하여

2019년 122,981명, 2020년 121,299명임. 논산시 노령화지수는 2020년 232.8, 2025년 298.6인 것으로 나타남(<https://www.nonsan.go.kr/kor/html/sub04/040104.htm> 검색일자 2021.6.26.).

외국인주민 대표자회를 발족하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간담회 등의 개최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교육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논산시의 경우 문화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논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어울림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과 2019년도에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문화중점학교(초등학교) 중심으로 실시된 바 있지만 중등교육기관과 시민대상의 세계시민교육이 부재한 바 논산시민 대상 다문화인식개선 교육관련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일례로, 논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법과 논산시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논산시사이버문화센터, 논산시평생학습센터와 연계·운영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본 연구가 논산시에 거주하는 전(全) 외국인근로자 대상 조사가 아니라 등록 외국인 180명 대상 실시된 연구라는 점에서 향후 미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논산시 관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전수조사와 그에 상응한 정책 보완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 김남진(201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인권법평론> 17집,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119쪽-140쪽.
- 김연홍·임세영(2014). 외국인근로자 직업·근로의식 연구. <직업교육연구> 33집 5호, 한국직업교육학회. 63쪽-83쪽.
- 김연홍·이성순(2019).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고용허가제 현장 컨설팅 사업의 의의와 발전방안 연구, <다문화콘텐츠연

- 구> 31집,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173쪽-212쪽.
- 김정호(2018). 고용허가제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45쪽-285쪽.
- 박원주·전용일(2012). 사업장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의 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설동훈(2010).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쟁점과 전망, <한국이민학> 1집 1호, 한국이민학회. 5쪽-28쪽.
- 법무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 법무부(2019).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추진과제 발굴 연구.
- 법무부(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설동훈·이규용·노용진(2011).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설계 방안, 서울: 고용노동부.
- 손윤석(2013).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법학연구> 49집, 한국법학회. 1쪽-23쪽.
- 송재일(2016).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인력의 활용을 위한 법제의 개선, <법이론실무연구> 4(1), 한국법이론실무학회. 107쪽-147쪽.
-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https://global.ansan.go.kr>).
- 엄진영·우병준·김윤진(2017).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외국인정책위원회(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월드리서치(2020). 논산시 관내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유민이(2019).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인권보호 방안 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69쪽-89쪽.
- 이민술(2019).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다문화인권교육 운영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12집 1호, 법과인권교육학회. 143쪽-161쪽.
- 이성순(2013).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4집 3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61쪽-185쪽.

임안나(2009).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지원학회지> 4집 1호,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1쪽-25쪽.

충청신문(2015.6.1.). 논산시 평생학습도시 선정, 명품교육도시 ‘날개달다’

통계청(2019).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청(2020).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전문가 회의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18). 2018년 EPS 현장건설링 시범사업계획.

논산시청(<https://www.nonsan.go.kr>).

충청남도교육청(<http://www.cne.go.kr>).

한국은행(<http://ecos.bok.or.kr>).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http://hsbluebird.co.kr>).

필자 소개

성 명 : 이성순

소 속 : 목원대학교 신학과, 일반대학원 한국어다문화학과

주 소 :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신학관 A405호
[우편번호] 35349

전화번호 : 010-3407-8309

전자우편 : sslee@mokwon.ac.kr

투고일: 2021. 7. 1 / 심사일: 2021. 7. 30 / 심사완료일: 2021. 8. 18